

보수당, 새 당수에 4 명 각축전

보수당은 하퍼 전 수상이 자유당(당수 저스틴 트루도)에게 연방대선에 패배하여 정권을 넘겨 줄 때까지 10년 가까이 캐나다 연방을 통치했다. 그 당시 현 알버타 주지사인 제이슨 케니 또는 피터 맥케이가 하퍼의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었다.

피터 맥케이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각료직을 맡아 활약했고 그의 선친이 캐나다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굴지의 정치인이었다. 어떤 연유서인지 보수당 내각이 자유당에서 정권을 빼앗길 분위기 속에서 하퍼 수상은 제이슨 케니를 국방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피터 맥케이는 일찍 정계를 떠날

것을 공표하고 고향에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농부로 살아 가고 있었다.

하퍼의 총애를 받던 제이슨 케니는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과감히 금벳지를 던지고 연방 정계를 떠나 알버타 주 정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새 당을 창당, 초대 당수가 되어 아주 가볍게 나틀리 전 주지사를 무너뜨리고 알버타 주지사로 등극하는 쾌거를 일으킨 노련한 정치인이다.

현 보수당 당수 앤드류 시어가 당수직 사임 일정을 발표하자 여러 명의 연방 보수당 후보 희망자가 나타나더니 드디어 8월23일 새

당수 선거일을 앞두고 1 명의 여성 후보와 3 명의 남성 후보 모두 4 명이 연방 보수당 당수에 도전하고 있다. 이 네 후보들 가운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피터 맥케이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맥케이와 함께 하퍼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지금은 알버타 주 정계로 활동 무대를 옮겨 온 케니가 향후 북미주 정계에서 말하는 endorsement을 맥케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해 주었다는 뉴스는 많은 캐나다 국민들과 언론을 놀라게 했다.

케니는 연방 정계에서 큰



▲ 좌로부터 Peter MacKay, Erin O'Toole, Derek Sloan and Leslyn Lewis.

별이었다. 어느 정치 모임에서 케니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연방정계에서 활약하여 캐나다 수상이 될 사람이 어찌 알버타 주 정계로 옮겨와서 활약하고 있

는가?"라고 묻자 "아니야, 우선 이거 먼저 하고 다음 번에, 다음 번에..."라고 의 미심장한 발언을 자신도 모르게 실토하고 있었다.

이 번 일요일 선거에서 누가 캐나다 연방 보수당 당수가 될런지 캐나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알버타 교사 협회, 주정부에 노동절 이후로 개학 연기 요청

알버타 교사 협회 (Alberta Teachers Association)는 교사와 교장에게 팬데믹에 대비한 교육 준비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노동절 이후까지 개학을 연기 해 줄 것을 주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이슨 실링 ATA 회장은 9 월 첫째 주에 시작될 예정인 개학을 주정부가 최소 9 월 8 일까지 수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링은 이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수업재개 할 준비가 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수요일 오후 아드리안 라그랜지 교육부장관을 만나 개학 계획에 대한

협회의 우려를 논의했다.

실링은 수요일에 이어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주 최고 의료 책임자가 제시 한 보건계획을 교육계획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사와 교장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주 BC 주정부는 학생들이 주정부의 점진적인 수업 재개의 일환으로 9 월 8 일이 아닌 9 월 10 일에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규모 수업, 더 많은 지원 요청
이번 모임은 협회가 학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교실 내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이루어졌다.

협회는 지난 8 월 초 코로나-19 교육 실무 그룹 구성부터 학교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7 가지 우선 순위 목록을 마련했다. 그런 다음 지난주 협회 연례 총회에서

주 전역의 교사들은 소규모 학급, 지원 직원 증가, 정신 건강 지원 개선 및 학교 공립 간호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라그랜지 장관은 "우리가 3 월에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취소 한 이후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재개와 관

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학교 재교육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ATA의 역할에 감사드린다"며 수요일 회의 후 성명에서 말했다.

소규모 클래스는 ATA의 요구 사항의 기둥이었다. 실링은 교사들이 특히 30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수업에서 건강 프로토콜 관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버타주 최고 의료 책임자 인 힌쇼박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실이 더 적절하게 각 커뮤니티 실태를 반영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사회 전파율이 낮으면 학교에서도 전파율이 비스

하게 낮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가 일반인보다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낮으며 스웨덴도 학급 규모가 평균 20 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애드먼튼 고등학교는 분기 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반적인 2 학기의 4 개 수업에 비해 분기별로 최대 2 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에서 가장 큰 교육청인 캘거리 교육위원회는 수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에드먼턴 코로나-19 확진 토론토의 두 배 이상 70%가 40대 미만 젊은층에서



에드먼턴의 코로나-19 확진이 토론토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자 알버타 주 최고 의료 책임자가 비상경고 등을 들었다.

화요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에드먼턴에서 572 건의 활성 사례가 있으며 감염률은 10만명당 56명이다.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 10만명당 활성 사례가 50명이 초과하면 특별 감시 대상으로지목하게 된다.

이에 비해 토론토는 10만명당 8.93건으로 264건의 확진 건수가 있을뿐이다

주최고 의료책임자인 Deena Hinshaw 박사는 앤드먼튼이 도시의 발병 원인이 혼란된 패턴을 보이고 있

다고 말했다. 확진 사례의 70 %는 가정내 전파 및 사교 모임과 관련이 있는 40 세 미만이며 일부 사례는 신앙 기반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두 건의 개별 확진자가 43명에 전파시켰다고 한다. 이와함께 15 건의 사례가 오순절 교회 회원들의 8 월 주말연휴 모임과 관련이 있었다.

2분기 새 이민자 발길 급감 -이민성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린 지난 2분기(4~6월)에 새 이민자가 6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이민성 0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캐나다에 정착한 새 이민자수는 3만4천2백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4천2백75명과 비교해 큰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5년 집권한 연방 자유당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며 은퇴층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개방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봉쇄로 국경이 통제되고 이민성의 업무도 큰 차질을 빚었다.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체 새 이민자는 10만3천4백20명이며 당초 연방정부의 올해 유치 목표선은 34만1천명이었다.

이민성은 이민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타와의 한 이민전문변호사는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장기간 지연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엔 시민권 신청의 경우 약 1년 정도 기다렸으나 지금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민성은 자체 웹사이트에 "이민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고 공고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서류 심사부터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지난 4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YOU & EYE OPTICAL Dr. Martin Kwon

권혁진 안과 가정의

한국어 및 영어 안과진료
눈병 및 응급진료 Walk-In
눈 정기건강검진 및 시력검사 예약
콘택트렌즈, 안경 및 선글래스 문의

2984 Ellwood Drive SW Edmonton (780) 440-2239

기경락 마사지

Young Kim
RMT, Doctor of TCM

모든 의료보험 사용가능

추나요법 20년 경력

예약 : 4038702776
72 Arbour Crest Dr. NW Calgary

STAMPEDE 한인약국

월~금: 10-6
토: 10-2
일: 예약가능

약사 임채현 (Terrie)
403.460.4646
19,3616-52 Ave NW (코리아나마켓 옆)

알버타 인술 39년

Dr. Wan Mo Chung
Pleasantview Professional Building
#304, 11044-51 Avenue, Edmonton
TEL: (780) 434-1143

정완모 데디칼 센터

Koryo Optical

고려프라자 안경원

"눈의 소중한 & 패션의 완성"

패키지 \$145 | 어린이 패키지 \$125

403-228-6878
1324 10 Avenue SW, Calgary

ACUSPORTS
PAIN-REHABILITATION-CLINIC
"YOUR PAIN STOPS HERE"

아쿠스스포츠

원장 김보목
• 침술요법
• 카이로프랙틱
• 마사지테라피

Macleod Place Unit 201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Cell. 587-700-9907
Phone. 587-331-922

통증 재활 클리닉
www.acusports.ca
acusports165@gmail.com